

“손주 보러 서울갑니다”...양손 가득 역귀성객 증가

르포 설 연휴 앞둔 터미널·승정역 기보니

명절 선물 한가득 들고 발걸음 분주
마중 나온 시민들 손 잡고 함박미소
“마스크 벗고 추억 많이 쌓고 싶어”

“코로나19로 얼굴을 못 뵈어요. 이번 설부터는 부모님께 좋은 소식만 들려주고 싶어요.”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9일 오전 광주 서구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

터미널에는 명절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걸음을 재촉하는 이들에게 큰 배낭을 메거나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이 보였다.

한 시민은 손에 집이 너무 많아 손수레를 끌며 겨우 이동했고, 좌석 예매를 마친 귀성객들은 고향에 전화로 도착 시간을 알리는 등 명절임을 실감했다.

취업소식을 부모님께 전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터미널을 한결같이 도착한 청년도 눈에 띄었다.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김 모씨(27)는 “코로나19 동안 자취방과 학원만 오가며 공부하느라 부모님도 뵈지 못했다”며 “부모님께 드릴 내복과 용돈을 챙겼다. 올해부터는 멋있게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을 보러 역귀성길에 오른 노부모들도 많았다.

아들집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서울행 버스표를 예매한 박순자씨(71·여)는 굴비와 떡이 들어 있는 보따리를 가득 들었다.

박 씨는 “자식들이 바쁘다 보니 직접 서울에 가서 얼굴도 보고 밥을 챙기려 간다”며 “아직 건강하니 움직일만 하다. 거리두기도 해제했는데 손주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승정역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두 손 가득 들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이들을 마중 나온 가족들로 붐볐다.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볼 생각에 설레는 표정을 띠고 있었다. 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온 군인들과 한복을 차려입고 기차에서

내리는 어린 아이도 볼 수 있었다.

한복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인천에서 온 김시은 양(6)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고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한복을 입고 왔다”며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기원하며 새배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함께 온 어머니 박은정씨(35·여)는 “멀리 있다 보니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 설날에 찾아뵙는 건 오랜만이라 한복을 입고 나섰다”며 “아이도 유치원에서 한복 입는 법을 배웠다. 부모님이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환하게 웃었다.

대전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김예린씨(22·여)는 “학교 시간표가 맞아 조금 빨리 고향에 내려올 수 있었다. 추석 이후로 오랜만에 뵈는 어머니께 드릴 꽃을 한 송이 샀다”며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도 찾아뵙고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역사에서 딸 가족을 기다리던 김순옥씨(67·여)는 “지난 추석 때 오지 못했던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왔다”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기 위해 장도 보냈다. 오랜만에 손주들을 볼 생각에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민찬기·김혜린 기자



설 연휴 교통혼잡을 피해 수도권에 있는 자녀 집으로 설을 쇠러 가는 한 노부부가 19일 오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선물꾸러미를 들고 고속버스를 타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최다’

10건 중 3건 발생

설 명절 연휴 전날, 광주·전남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과 연휴 기간 총 753건이 발생했다.

그중 설 명절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

연휴 전날 244건(32.4%), 연휴 첫날 163건(21.6%), 연휴 셋째 날 127건(16.9%), 연휴 넷째 날 118건(15.7%), 연휴 둘째 날 101건(13.4%) 등 순이다.

연휴기간보다 귀성길이 시작되는 하루 전날 교통사고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맞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수출대 등 유관기관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띠, 줄음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차 후부 반사판과 사각지대 주의 스티커를 배포한다.

이법열 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안전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하남동 ‘얼굴없는 천사’...설 앞두고 23번째 선행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온 광주 광산구 하남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왔다. <사진>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익명의 기부자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8일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사과 50상자를 놓고 갔다.

이 기부천사의 선행은 이번이 23번째다.

지난 2011년 설날 전 익명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명절마다 조용히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과일, 쌀, 떡 등 나눔 물품을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윤영봉 기자



‘증거 인멸시도’...위증사범 32명 적발

광주지검 공판부는 최근 6개월간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 3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28명을 기소(구속기소 1명·불구속기소 27명)하고 4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권력 비리 유착형·범인 은폐형·진분 및 이해관계형 등의 위증사범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운전자 바뀌이기, 성매매 실업주 은폐 등 범인 도피 사범 3명도 적발됐다. /최환준 기자

A씨는 광주시의원 재임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에게 식사 접대를 받은 선거구민, 식당 업주, 교회 관계자 등 3명은 A씨가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자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위증 또는 운전자 바뀌기 등을 한 사례들이 있었다. /최환준 기자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천안본사 및 공장 충청남도 서북구 망향로 903-6 (오목리9)